

시정 현안해결 '머리맞대'

익산시-도의원 간담회... 내년도 주요사업 등 논의

익산시가 지역 정치권과 함께 시정 미래발전을 위해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현안문제 해결 방안 등에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3일 정현을 시장과 김대오, 김정수, 김기영, 최영규 도의원, 국·소·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사·도의원 시정 미래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현안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로 국·소·단장이 주요사업 계획 및

현안문제 대해 설명하고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전국체전을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2 전북 아태 마스터스 대회 개·폐회식 익산시 유치권 건의했고 미륵사지 지방도 722호선 이설사업 및 지방도 722호선 도로 확장사업, 익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이적 처리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건의, 전북 참다듬이료복합단지 조성 위한 전북도 관계부서의 협조 요청,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금마배수지 확충공사 사업비 확

대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현을 시장은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신 도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석한 도의원들은 "내년 익산시 현안문제 해결과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도의원은 분기마다 주기적으로 정책간담회를 실시해 시정의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당면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익산=정영원 기자

군산시, 로컬푸드 지수 우수 지자체 선정

전국 159개 시·군 평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호평

군산시가 3일 전국 159개 시·군을 대상으로 로컬푸드작매장 및 공공급식 분야의 로컬푸드 지수를 평가한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 우수상을 시상했다.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시민모임이 시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 간 로컬푸드 활성화 노력과 성과를 지수화해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로컬푸드 지수를 전국 15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 우수 지자체 13곳을 선정했으며 군산시가 우수상을 시상했다.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시민모임이 시행했다.

이번 평가는 로컬푸드의 지역 간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로컬푸드 가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자 추진한 로컬푸드 지수평가는 2019년을 기준으로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분야의 ▲로컬푸드 기획생산(생산·소비) 촉진 ▲안전성 관리 ▲지역거리 공공조달 ▲농가소득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참여, 공공정책 등 먹거리 거버넌스가 측정 대상이었다.

시는 올해 로컬푸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푸드플랜 구축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중심으로 정책지원과 일간지 기획기사와 방송 인터뷰 등 언론 홍보 등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시는 지난 2019년에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전국 공모사업에 선정돼 푸드플랜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비 예산확보 지원 행정 내 전담조직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와 협약(2019년)을 통해 2021년 군산 푸드플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군산푸드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농업인 공동이용 식품제조시설 구축사업, 로컬푸드복합센터 사업에 국비 44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88억 원을 투자해 예측 가능한 기획생산(생산·소비) 시스템을 구축하고 푸드플랜에 집중 투자해 왔다. 아울러 오는 2021년 로컬푸드작매장 민간공모사업에 군산원협과 동군산농협이 선정돼 로컬푸드작매장 2개소가 추가 신축되면 지역의 안전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 여산휴게소 명칭 변경, 시민 71% "찬성"

익산시가 여산휴게소 명칭 변경을 위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명칭 변경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와 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진행됐으며 총 1,099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71.1%에 해당하는 781명이 여산휴게소 명칭 변경에 찬성했으며 63.1% 694명이 휴게소의 새 명칭으로 '익산마륵사지휴게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여산휴게소를 이용하는 방문객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면조사를 실

시한 결과 응답자의 58.4%에 달하는 297명이 여산휴게소 소재지가 익산시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답변해 익산이라는 지역 인식 제고를 위해 휴게소 명칭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산휴게소는 익산 행정구역 내 유일한 고속도로휴게소로 지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철원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휴게소 명칭 변경에 관한 제안이 나온 이후시에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공정성을 위해 KTCS 여론조사업체



익산 행정구역 내 유일한 고속도로휴게소인 여산휴게소.

에 의뢰하여 지난 9월 18일부터~10월 1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1,099명의 익산시민과 500명의 휴게소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전화, 온라인조사), ±4.3%(대면조사)이다. /익산=정영원 기자



군산시는 지난달 22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군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체납액 징수·동산 압류 등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통해 조세징의를 실현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2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시·군이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며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처음으로 실시한 가택수색에서 군산시는 2명의 주택을 수색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동산을 압류했다.

이번 가택수색이 진행된 군산시 체납자 2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5,500만 원에 달했다.

A씨의 경우는 전주시에 거주하며 지난 2017년부터 군산시에 체납된 세액이 4,100만 원에 달했으나 2018년 이후 자진납부 내역이 없어 여러차례 납부유도를 했으나 재산이 전혀 없으며 납부를 회피했다.

이번 가택수색에서 고가의 미술품 2점을 압류했고 체납자가 운행하는 고

급 외제차량이 불법 명의를 차량(대포차)임을 확인해 구청의 협조를 받아 번호판 영치 후 강제 견인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을 여러개 소유하며 재산세 등 1,900만 원을 체납한 B씨의 경우는 우편물이 수령이 안되고 주소지 방문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 가택수색을 단행했으나 수색 실시 전 현장에서 분담을 약속해 확인서를 징구하고 당일 850만 원을 징수했다.

군산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78명으로 체납세액은 75억 원에 이른다.(2020년 10월 31일 기준)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위장이혼, 타인명의 사용 등 고의적·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징의를 실현하고 납부의무를 고취 시킬 계획이며, 앞으로 전북도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가택수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의회, 행감대비 의원 역량강화 교육

군산시의회의회(의장 정길수)가 3일 제2차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길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속 거리 두기 실천 차원에서 시의회 11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첫 수업은 소양교육으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특임교수 한주는 교수로부터 의정스피치 스킬과 미디어 응대 스킬 등 강의가 이뤄졌다.

이어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특임교수 주영진 박사가 강사로 나서서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본예산심사, 의안심사 방법 등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사항부터 실제 감사에 적용할 수 있는 팁까지 폭넓게 다뤘다.

정길수 의장은 "시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어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지역 소식통

익산사랑 서포터즈 모집

익산시가 추진하는 인구증가 정책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익산사랑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이며 지역의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인구정책의 시민 참여 확산과 다양한 홍보 역할을 하게 될 제1기 익산사랑 서포터즈는 ▲인구증가정책 사업 아이디어 제시 및 모니터링 ▲주택, 일자리, 출산보육, 문화환경 등 분야별 인구정책 시민 홍보 ▲익산사랑 주소 바로가기 온·오프라인 홍보 및 공유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포터즈단은 25명 선착순 모집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02014@korea.kr)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최종 명단은 17일에 발표되며 선발된 서포터즈단은 이달부터 2022년 10월까지, 24개월 동안 SNS 분기별 활동 보고, 교육, 홍보·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익산=정영원 기자

노후 공동주택 주출입구

군산시, LED센서등 설치

군산시가 3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 27개 단지의 주출입구 236개소에 LED센서등을 설치해 어두운 밤길을 밝힌다.

시는 지난 6월부터 내원·3동 및 소룡동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그동안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단지의 기본적인 안전점검과 매월 월 평균 50~60건의 전등교체, 수도 및 위생설비 부품 교체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LED센서등 설치사업은 동절기를 앞두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다수 거주함을 고려해 범죄예방과 미끄럼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